

아무 자객 없는 저해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교훈으로 살아 오신 세대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가르치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사야서 54장 13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0월 13일 (토) 제 170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홈스쿨링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뉴스위크, 부모가 선택할 자녀 교육방식 권리보존 역설 보도

학교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는 재택교육을 홈스쿨링(homeschooling)이라고 한다.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언스쿨링(un-Schooling)이라 불리기도 한다. 학교라는 제도가 일반화되면서 학교 교육과 부모의 양육의 역할이 분리됐지만 공공교육의 확실적인 교육에 반대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이 확산되고 있다. 요즘 미국의 홈스쿨러들은 거의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그런 대안적인 교육

접근법을 믿고 실행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주류사회에서도 공공교육의 대안으로서 자리 잡은 홈스쿨링을 주정부가 감사,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법안들이 논의 중이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다시 한번 홈스쿨링의 역사와 현재를 소개하면서, 그 자유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보도한다(HOMESCHOOLING FREEDOMS MUST BE DEFENDED AGAINST PARTISAN CHALLENGES).



홈스쿨링을 주정부가 감사 감독할 수 있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홈스쿨링은 1993년 합법화된 이래 지난 25년간 지속되고 있다.

1977년 존 홀트가 홈스쿨링을 채택한 가족들을 서로 연결하고 격려하기 위한 최초의 뉴스레터 '학교교육 없이 성장하기(Growing Without Schooling)'를 제작했을 때 우리 중 다수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을 것이다. 홀트는 학교 밖에서 능동적인 배움의 길을 찾는 '언스쿨링' 운동의 창시자로 홈스쿨링과 대안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교육 개혁가였다. 그를 비롯한 여러 사회 개혁가들의 노력과 투쟁 덕분에 1993년 미국의 모든 주에서 부모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합법화됐다.

홈스쿨링이 완전히 합법화되기 전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안 교육의 길을 개척한 초기 홈스쿨링 부모들에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당시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는 홈스쿨러가 약 200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제 홈스쿨링은 합법적인 대안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홈스쿨러의 수가 많아지면서 다양성도 늘어나고 있다. 인종·계층·종교·민족·이념·철학이 다양한 가족들이 자신의 고유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홈스쿨링을 선택하면서 그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흑인 학생은 학교에서 제도적인 차별을 받는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미국의 무슬림 사이에서도 홈스쿨링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스쿨링이 널리 용인되고 미국의 다원적 사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해가고 있

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자만에 빠지기 쉽다. 우리 대다수는 무단결석 감시자가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일을 더는 걱정하지 않는다. 또 홈스쿨링에 좀 더 관대한 동네로 이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우리는 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느냐고 이상하게 보고 참견하려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평일 오전에 자녀와 함께 야외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주 다양한 교육 접근법 중에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학교 당국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최근 들어서야 홈스쿨러들이 누릴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기 쉽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집에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자유는 그냥 생김새 아니라 이전의 용감한 부모들이 고문을 겪으며 쟁취한 것이다. 그들의 선택과 투쟁 덕분에 지금 우리는 홈스쿨링을 어렵고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

홈스쿨링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그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3면으로 계속)

종이신문 독자가 더 나은 뉴스 소비자

니먼저널리즘연구소, 인디펜던트 신문발행 중지 후 뉴스도달범위, 영향력 측정변화 연구결과 밝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일간 신문사가 대규모로 문을 닫지는 않았다. 사실 그보다는 대규모의 수축이 이루어졌다. 신문사가 문을 닫는 속도는 20세기 후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신 모든 일간 신문사는 해마다 점점 더 작은 뉴스 편집실과 적은 예산을 갖고, 적은 인쇄 부수와 페이지의 신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수축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 2018년 2분기, 미국 언론 맥클라치의 신문 광고 수입은 매년 26.4%나 떨어졌다; 미국 미디어 그룹 개닛은 19.1%, 트루크는 18%나 떨어졌다. 그들은 새로운 일간 신문 구독자들을 더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구독자 역시 디지털로 옮겨가거나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뉴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폐쇄하는 방안 중 하나를 취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종이신문에 매우 우호적인 발행인조차 당신에게 언젠가 "신문 인쇄비용"과 "신문에서 오는 수입"이 교차하면 그때는 신문 발행을 멈춰야 할 때라고 말할 것이다. 남은 질문은 그게 언제인지에 대한 것이다. 2년? 5년? 10년? 30년?

그렇다면 언제든 간에 신문 발행이 사라질 경우,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신문 독자들이 디지털 독자로 변할까?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지역 언론 뉴스를 읽는데 아침 식사에서 신문을 읽는 것만큼 비슷한 시간을 소비할까? 독자들이 인터넷이 제공하는 모든 다른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되며 그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않을까?

니먼저널리즘연구소(NiemanLab)가 전해주는 닐 서먼과 리처드 플레처의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한다(What will happen when newspapers kill print and go online-only? Most of that print audience will just...disappear).

콘텐츠 소비시간 신문구독자 81%, 디지털플랫폼 19% 차지 인쇄매체 신문 경쟁자는 적지만 온라인에서 경쟁자는 무한

서먼과 플레처는 30년간 종이 신문을 발행하다 2016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뉴스를 제공하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의 사례를 연구했다. 인디펜던트지 뉴스의 도달 범위와 영향력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3면으로 계속)



2면

시론 최해근 목사



7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ATIS 정회원 월드선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할렐루야 백화점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유료 특별할인 판매
www.laboookusa.com / cbc0191@hotmail.com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9838 Garden 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HEAL OUR LAND 2018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회개·부흥·회복·선교
일시 2018년 10월 28일 주일 오후 5시-8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문의: 강순영 목사 (310) 995-3936, 양경선 목사 (213) 255-1725
www.gracemi.com



시론

2018년 우리가 걷는 길....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6일 토요일 오후 늦게 미연방대법원의 114번째 판사로 브렛 캐버니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고 아내와 두 딸이 보는 가운데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상원법사 위 앞에서 성추문과 관련된 청문회를 한지 정확하게 1주일 만에 FBI 조사를 마치고 취임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원에서의 마지막 투표는 찬성 50명(공화당 49명, 민주당1명), 반대 48명(민주당 47명, 공화당1명)으로 철저하게 소속 당을 따라 찬반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양분(兩分)은 곧 바로 국민들 속에서도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상원 법사위에서 좀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처리를 했더라면 국민들의 마음이 양분되고 갈등하는 그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36년 전 자신이 십대 중반이었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캐버니 판사의 대답은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0년대 초반은 오늘날과 달리 핸드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구체적인 증거로 남겨두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엄청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나 여행 중에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방문하게 되면 자주 사진을 찍어 자신만의 보관용으로 저장해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 우리의 사생활이 노출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생활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숨길 수 있었던 사건들이 우리 시대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서 튀어 나와 곤욕을 치르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구설수에 얽히지 않고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의외로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결음을 언제나 지킬아가는 길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어느 동네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잘 해봐도 그 동네 사람들에게나 알려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손톱만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 생생하게 보도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뉴스가 큰 뉴스인지 작은 뉴스인지 가릴 겨를도 없이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지구촌 반대편까지 사진과 동영상 등 반반한 채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로 의미 없고 무게도 없는 조그만 뉴스가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이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의 삶에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 실수한 행동마저도 그 누군가의 사진과 동영상 기록에 의하여 평생을 따라 다니며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평생의 삶을 진실한 결음으로 걷는 길만이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속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무인속도측정기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고 그런 곳을 요령 있게 피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규정 속도를 지키며 운전한다면 과속단속 경찰이든지 무인속도측정기이든지 모두 염려하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걷는 매 순간의 삶이 신앙인이 걸어야 할 진실한 결음을 걷는다면 우리의 걷는 모습을 그 누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더라도 언제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런 결음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살름... thechoi82@yahoo.com

감정 아닌 '언약' 위에 세워져야 오래 지속

처치리더스.컴, 결혼전문가 데이브 윌리스의 '결혼관계 망치는 9개 요소' 소개

데이브 윌리스(Dave Willis)는 온라인 페이지인 '페이스북 결혼(the Facebook Marriage)'과 'StrongerMarriages.com'의 창립자로, 아내 애슐리와 SNS로써나 개인적으로 수천 쌍의 부부와 소통하고 있어서, 듣기 불편한 주장을 펼칠 준비가 돼있다. 바로 오늘날의 결혼은 잘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문화가 결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선물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점을 잃어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가정은 공

고한 토대 없이 성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훌륭한 결혼은 운이나 우연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간, 배려, 용서, 애정, 기도, 상호존중, 굳은 서약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실패하고 있는 9가지 주요 요소를 무작위로 살펴본다. 이 9가지 영역에서 관점과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면, 오늘날의 결혼은 바로 나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Nine Reasons Why Modern Marriage isn't Working)고 윌리스는 설명한다.

1. 약혼한 남녀가 훌륭한 '결혼식'에는 시간과 돈은 엄청나게 쓰지만 훌륭한 '결혼생활'을 준비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장 행복한 결혼은 두 사람 모두 꾸준히 힘써 상대의 필요를 본 인보다 우선시하는 데 있다.

결혼식에는 준비할 게 많다. 드레스, 촬영, 음식, 책자, 참석 명단 등이 계속된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필자도 훌륭한 결혼식을 정말 좋아한다. 그러나 결혼식이 정말 멋진 하지만 결혼식이 결



반이나 토대가 되지는 않았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에 토대를 둘 수 없다. 대신에,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서약에 세워야 한다.

오늘날은 감정을 찬양하고 감정이 변하면 결혼생활을 그만두지만, 가장 굳건한 부부는 서로를 좋아하려고 분투하는 때조차도 서로의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6. 결혼생활은 50대 50의 동반자 관계다.

"건강한 결혼생활은 남편과 아내사이 시간, 배려, 용서, 애정, 기도, 상호존중 굳은 서약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혼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꿈같은 결혼식이 바로 악몽으로 변하는 남녀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결혼식은 딱 하루만 지나면 되지만 결혼생활은 평생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치를 파티이상의 계획을 하고 있어야 한다.

군건한 결혼을 준비하도록 돕는 몇 가지 중요한 자산은 '약혼한 남녀를 위한 심비스 보고(the SYMBIS assessment for engaged couples)'에서 얻을 수 있다.

2.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말하기보다는 휴대전화로 문자한다.

필자는 과학기술의 열렬한 팬이고 다른 사람처럼 아이폰에 중독돼 있지만 의도적으로 경계를 짓지 않는다면 이 작은 고성능 컴퓨터가 사람을 위협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특히 결혼생활에 있어서 얼굴을 맞대며 인간적인 소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떤 과학기술도 쓰지 않고 함께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여러 부부가 근처에 불빛이 빛나는 화면이 없으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 버렸다. 다양한 대화와 친밀한 관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휴대전화도 좋지만 기

계 없는 대화가 훨씬 더 좋다.

3. 결혼생활의 조언을 시간을 초월한 진실 대신에 인기 있는 유형에서 찾는다.

필자는 크리스천이어서 의미 있는 인생과 멋진 결혼생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고 믿는다. 놀랄 수도 있지만 성경이 실제로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많이 고무됐다. 결혼에 대한 조언을 시간을 초월한 근본에서 찾지 않고, 할리우드·대중문화·잡지·휴게실 대화의 조언에 모두 맡기게 되면, 결혼은 인생의 폭풍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4. 결혼을 언약이 아닌 계약으로 본다.

결혼하면 국가는 이 결합을 계약서에 지나지 않게 본다. 변호사인 필자의 두 남자형제는 필자에게 '계약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불신 위에 만들어진 당사자 간의 단순문서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은 결혼을 계약을 뛰어넘는 존재, 언약으로 창조하셨다. 언약 안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익에 있지 않고 타인의 유익에 있다. 언약은 이타적이고, 시간을 추월하고 출구 전략이 전혀 없다. 바로 이것이 결혼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견해를 잃었다.

감정은 변덕스러워서 결혼의 토대로 보면 안 된다. 서약에 뒤야 한다. 서약의 힘이 늘 관계의 힘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5. 서약이 아니라 감정 위에 결혼을 세우고 있다.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감정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변덕스럽기 때문에 나침

결혼이 분명 동반자 관계인 것 맞지만, 오늘날, 모든 것을 위협하게 '내 것' '네 것'으로 나눈다. 결혼을 50대 50로 보게 되면 늘 점수를 따지며 배우자의 노력을 자신과 비교하며 측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의 항상 자신의 점수를 배우자보다 더 후하게 주게 된다. 또한 노력을 줄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자신의 몫보다 더 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이는 결국 둘 사이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결혼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결국 사랑을 바꾸게 된다. 따라서 관계를 50대 50으로 보지 말고, 100대 100으로 보아야 한다. 결혼 생활에 100%를 쏟아야 한다.

이혼은 50대 50이지만, 결혼은 50대 50이 아니다. (4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QR code.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text about its programs and contact details.

“홈스쿨링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1면에서 계속)
우리가 선배들처럼 홈스쿨링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홈스쿨링이 주변부에서 주류로 이동함에 따라 지방 정부가 그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가정집에서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된 13남매가 1년에 한 번 이상 샤워하지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극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현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건이 제기였다.
그 부부는 체포 당시 자택을

사람학교로 인가 받아 홈스쿨을 운영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홈스쿨링 정책을 제정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이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 민주당 호세 메디나 의원은 다른 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주정부 차원의 ‘홈스쿨 규제강화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등록된 홈스쿨들을 매년 엄격하게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 교육감이 등록된 홈스쿨을 의무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촉구한다.
한마디로 홈스쿨링 가족을 규제하고 정부의 감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홈스쿨링의 ‘개혁’을 지향한다.
메디나 의원은 “각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학교 형태의 선택권을 부여하

야 한다. 학교 없이, 또 학교의 틀에 갇힌 사고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로부터 홈스쿨링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초기 선구자들처럼 홈스쿨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자유를 지키는 용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만일 애틀랜타, 덴버, 휴스턴, 시애틀의 신문사가 폐쇄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 물론 당사는 신문 소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얼마나 신문을 읽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이 부풀려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발견한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 인디펜던트지가 온라인으로 중점을 옮기면서 국제적인 도달범위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 종이 신문으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기사의 링크를 누를 수 있는 거대한 독자 집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시장 밖에서 증가하는 도달 범위는 미국 대도시권의 일간 신문이 온라인에서만 신문을 발행할 때는, 그들이 지역에서 담당하는 임무를 극단적으로 버리지 않는 한,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
여전히 많은 사람은 엘버커키, 프레즈노, 신시내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 종이 신문 발행을 멈추는 것은 언론사의 비용을 절감한다. 신문사 지출 구조의 큰 부분은 건물 크기의 인쇄기, 캐나다산 나무, 대형 통의 잉크에 묶여있다.
하지만 신문 발행을 멈추는 것이 신문사의 실리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독자들은 이에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언론의 도달 범위와 영향력의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이신문 독자가 더 나은 뉴스 소비자

(1면에서 계속)
신문 발행을 중지하던 시점, 인디펜던트지는 5천8백만 명의 디지털 월 사용자와 비교하면 오직 4만에 불과한 신문 유료 발행 부수를 가지고 있었다.
5천8백만은 4만보다는 훨씬 커 보인다! 하지만 서면과 플레처는 이 적은 수의 신문 구독자가 인디펜던트지 콘텐츠에 독자들이 소비하는 시간의 8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독자들이 인디펜던트지 콘텐츠에 소비하는 시간은 오직 19%에 불과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는 평균적으로 인디펜던트지 신문 구독자 한 명이 월별 웹사이트나 앱 이용자 1명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소비의 6,100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월별 디지털 이용자는 사람들의 행동을 측정하고 신문 발행은 부수를 고려하기에 완벽한 비교는 아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종이 신문 독자는 디지털 이용자보다 더 나은 뉴스 소비자이다.
그러나 인디펜던트지의 신문 구독자들이 소비하던 모든 시간이 신문 발행이 중지되며 사라졌다. 그 시간은 인디펜던트지의 온라인 홈페이지로 가지 않았다. 그 수효는 다른 뉴스 사이트, 몇 분 동안의 페이스북 스크롤링, 넷플릭스, 포트나이트, 오후의 낮잠과 같은 누군가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
서면과 플레처는 신문 발행

중지 시점의 12개월 전과 후의 기간, 독자들이 인디펜던트지에 소비하는 전체 시간이 56억 분에서 11억분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문 독자 중 반은 “거의 매일” 신문을 읽는다고 답했다. 온라인 방문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기사를 읽는다.
신문 독자들이 그들이 읽는



일간 신문에 평균적으로 매일 37-50분의 시간을 소비하는데 반해, 온라인 인디펜던트지 독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6분을 쓴다.
2009년, 마틴 랑에펠트는 단순 계산을 통해 신문 콘텐츠의 오직 3%만이 온라인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동종 산업에서 보여주는 트렌드는 뚜렷하지만 폼스코어, 오픈슈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거대한 디지털 숫자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이동을 숨기고 있다.
마틴의 분석 이후 10년 동안, 적어도 인디펜던트지에 대해서

는 3%라는 디지털 소비수치는 19%로 바뀌었다. 하지만 소비 구조의 역학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인쇄매체 신문은 오직 적은 수의 경쟁자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에서 언론사는 무한의 경쟁자를 가지고 있다.
서면은 이렇게 말한다. “온라인에서만 뉴스를 제공하며, 인디펜던트지는 그동안 받고 있던 독자들의 관심을 잃었습니

다. 기사는 이제 읽기보다 단지 쳐다보는 대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디펜던트지는 지속가능성을 얻었지만, 중요성을 잃었죠.”
온라인에서만 뉴스를 공급하기로 전환한 미국 일간지들은 왜 인디펜던트지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인디펜던트지는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13개의 신문 중 하나다. 특정한 신문에 애착을 보이는 영국 독자들이 존재하지만, 인디펜던트지 독자들이 가디언이나 타임스, 텔레그래프의 신문 독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목양 헬프 대표

이 가을의 기도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하다. 산길 숲속길이 아니라도 상큼한 공기의 체감은 몸도 마음도 맑게 한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은 작년보다 다를 것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같지 않다.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내 가슴 속에 가을이 주는 매력과, 충격, 흐르는 노래는 이미 사라져 버린 상태이다. 산을 오르며 숨 가쁘게 느끼는 생명의 풍도,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케 한 산속의 풍경도 시들하고, 천연색색 오색찬란한 장면도, 허무의 그림자와 무능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에 감탄도, 노래도, 시도, 살아나지 않는다. 다정히 걸던 옛길의 추억도 별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가을은 또 다시 올 것이 분명하지만, 단 한번밖에 없는 인생길, 눈을 감았다 뜨면 지난 시간이 되어버리고,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릴 것인데, 나는 오색찬란한 산 중턱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시킨 이 가을의 장관을 보면서도, 감동이 시들어 있다.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시도...

그래서 바다로 향했다. 동해의 험한 파도를 보면서 때려도, 부딪쳐도, 부수어도 부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게 반복되는 창조의 기묘한 섭리를 보면서도, 나는 지금 옆구리를 짓누르는 고통 때문 거기에 전 신경이 머문 채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고통이 이 모든 것을 송두리 채 삼켜 버린 것이다.

속스로 돌아온 그날 밤 급히 준비해온 진통제를 입안에 털어 넣고는 한 없이 한 없이 울었다. 나약한 자신을 보면서 회개했다. 내 육체의 고통이 감격을 거두어 갔고, 내 육체의 현실이 감사를 송두리 채 지워버렸고, 내 육체의 진한 아픔이 노래를 잃어 버렸던 시간들을 한 없이 한 없이 울며 회개했다. 읊도 생각하고 바울도 생각했다.

물론 십자가 예수님 앞에 양심의 가책과 무력함이 더욱더 그러했다. 그 아름답고 요모한 창조의 운행 속에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나 버린... 고통의 찌름은 생각에 짓눌린 채... 놓쳐버린 어제의 감격을 후회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모든 것이 살아났다. 또 다른 새 힘이 주어졌다.

가을에 시를 더하면 더욱 가을 향기에 생동감이 넘치고, 가을에 산행을 더하면 눈과 귀 말고도 코까지 향취에 취하며, 가을에 고향 친구를 만나면 다양한 옛 추억이 살아난다. 과거를 죽여 버리는 내 육체의 고통은 인생을 더욱더 쓸쓸하게 하고 가을 아닌 겨울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행히 다행히 무엇보다 감사와 기도를 더 할 때 가을은 진짜 가을로 다가와 보여지고 느껴졌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다. 기도하며 감사할 때 변화되는 생각이다. 그래서 노래가 나왔다. 수필을 쓰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속초 수산시장에 들어서자 수산물보다 먼저, 검푸른 포도송이, 빨간 사과, 복숭아, 참외, 자두, 배, 게다가 굴, 무화과 싱싱한 과일들이 향기로 채워졌다. 중앙시장의 닭 강정도 내게는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고향 시골 생각이 났다. 유난히 푸르고 맑은 물 그릇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닌 청도감, 복숭아, 마나리, 다슬기는 독특한 맛을 느끼는 향도 음식과 과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청도 소싸움은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가본들 무너진 폐가와 노인정만 보일뿐 머물러 예기할 친구나 다정히 자라던 벗도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이제 아픈 두 다리 가슴의 통증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사랑하는 그 확신의 살아남고, 내가 혼자 아니고, 함께 하고 유난히 사랑하는 자가 있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흔들리는 마음조차, 축복의 과정임을 스스로 확신하며 희망을 노래한다. 잘될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 구세주 보혈을 믿는 높은 신앙이 생각으로 바꾸었다. 계속 감사로 바꾸었다. 사랑을 살리려고 했다. 기쁨도 소생되었다. 어제의 감격은 깊이 숨어 있었지만, 지워진 추억과 멈추고 있는 감격들을 하나하나 되살리며 노래한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가을 눈부신 아침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을 가슴에 담으면서 또다시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자연 그대로 안고 감사를 울리고 싶습니다. 오감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노래가 섞여 있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 가을의 기도는 회개와 소생의 가을바람을 되찾은 기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내 눈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을 받아주소서.

kkwon2002@hanmail.net

2018.10.13-14 SAT-SUNDAY 7PM

은혜한인교회 WPC (Grace Korean Church)
1645 W. Valencia, Fullerton CA 92833

More Info Douglas Kim 목사

714.393.5135 | www.facebook.com/1999HYM
www.hym.cc



강사 더글러스 김 목사
HYM Founder

Since 1999
HYM
HYM청년연합회



제39회

HYM청년연합집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THE MISSION FROM THE LORD JESUS

But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neither count I my life dear unto myself, so that I might finish my course with joy, and the ministry, which I have received of the Lord Jesus, to testify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ACTS 20:19-24

풍수지리사상과 같이 땅에 의해 인생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인생이 어떻게 땅에 매일 수 있겠는가? 사람이 좋으면, 땅이 좋아진다.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왕들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땅은 부흥하고 번성하였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배 중심, 교회를 중심한 삶이다. 그러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결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생의 축복-교회 앞으로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

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오가던 중에 믿음이 쏙 들어 오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집이라고 해도 다리 밑에 가마니 깔아 놓은 게 전 부엌을 텐데, 거기 누웠는데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다. 자신은 이렇게 거지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 놈들도 나처럼 강퍽 들고 거지 노릇 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지가 뭘 했느냐?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었기에,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이 생각나

배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인 승동교회 같은 경우에도 백정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세워진 교회이다. 백정 박승춘이 세례 받고 장로가 되면서, 양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분열과 화합을 거듭하며 성장하던 초창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 한때는 양반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예배당 뒤쪽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 백정들을 앉히려려고도 하였는데, 당시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며 양반쪽의 타협안들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다. 성경은 사람에게 대해 거지 백정 상놈 양반의 차

바치고 나면 나중에 뭘 먹고 살겠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은 백사경을 데려다가 교회 사찰집사를 시키게 된다. 그런데 그 사찰집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총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켜서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된 백낙준 박사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았더니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예배

- 믿음의 가문, 축복의 삶, 복된 세상

다.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조상제사 문제로 쉽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좀 달라고 하니, 좋은 땅을 내어 주지 않았다. 겨우 사정대기 얻은 땅들을 보니, 산꼭대기나 혹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을 내어 준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100년 넘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높은 지대 위에 산성처럼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들은, 정말 성경말씀처럼 온 세상을 밝히는 산성위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그런 시절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상놈, 거지, 백정 등의 천민들이었다. 그 중에서 거지에게는 남는 게 시간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는가? 출근할 일도 없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중에 아주 믿음 좋은 거지가

서 교회로 기도하러 간 것이다. 가서 기도하다 보니 또 말씀이 생각난 것이다. 간절한 소원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난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고 들은 선교사님이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거지가 그 마음에 근심을 털어놓았는데,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여차피 교회를 불려줘야 하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는 그 자녀들 가운데 뿔뿔해 보이는 아이들을 안식년 같은 때에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다는 것이다. 마치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의 아이들을 돕는 것처럼 데려와서 공부에 도움을 준 것이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한국으로 데려와서 자신들이 세운 명문 미션스쿨의 교수들이 되도록 도왔다는 이야기다.

차별없는 은혜-교회와 예

별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서 교회의 예배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증거 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냥 거지가 아니라 거룩한 거지가 되고, 거룩한 상놈이 되고, 거룩한 백정이 되는 것이다. 예배가 인생의 회복이며, 교회는 축복의 저장고임을 분명하게 증거 하는 내용들이었다.

평안도 정주 땅에 백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일하러 가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흙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저렇게 짓다가는 금방이라도 비가 오면 다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짓도록 현금으로 바쳤다.

선교사님이 볼 때 감사하면 서도 걱정이 되었다. 땅을 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날 복 받기 위해 교회를 섬기는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기복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자체를 말함이다. 기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인간 스스로가 만든 대상에 대해 손이 발이 되도록 베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대했던 복이 없다면 싫으면 언제라도 그 섬김의 대상을 자기 기준에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상에 대해 섬기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만복의 근원이시다. 결코 기복신앙의 대상이 되실 분이 아니다.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그 아들의 피 값으로 세운 그 교회 앞에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다.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사탄적인 악한 사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김 권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종말을 맞이하여 기독교의 해악이요 상극과 같은 악한 황충이 같은 사상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오늘은 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은표 목사가 출간한 개혁신앙의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글을 보면 “공산주의는 그 사상이 무신론이며 모든 종교는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대중을 탄압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했고 “종교는 공산주의 체제 하의 인민을 고통, 비참, 신바로 이끌어 죽음을 안겨주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가장 위험하고 지극히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소원시키는 일종의 정신병의 징조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자신이 타고난 탁월한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p. 19).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마귀는 ‘살인자’라고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공산혁명을 방지하여

공산주의는 사탄적 악한 사상...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어

모택동이 죽인 사람은 6,400만명이고 스탈린이 죽인 사람은 4,500만명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인 사람은 700만명이 넘고 김정은 체제에서도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공산혁명을 핑계로 많은 사람들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고 도적질했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요 성공적인 목회자였던 정암 김홍도 목사님이 쓰신 “불기둥”이라는 설교집을 보면 “공산주의는 재산을 함께 나눠 갖자”는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워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고 노동자, 농민이 잘사는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즉, 무산 계급 사회를 만들자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사상을 내세워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골고루 잘 사는 세상, 유토피아(Utopia)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며 선동하기를 “전 세계 노동자 농민들이여, 무산대중이 잘사는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려면 자본가의 재산과 공장을 다 빼앗아야 한다”라고 했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고 하면서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 방화, 살인 폭력 등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며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고 도둑질했습니다.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으나 결국은 골고루 못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산국가는 다 거지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나 레닌이 평등하게 잘 살자고 하는 것은 그 발상부터 도둑질하는 사상이며 강도의 사상, 마귀의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전교조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50대 대기업을 깨부수고 50개 교회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 사상을 가진 전교조가 내세우는 무상급식도 남의 것을 빼앗아 골고루 나눠주자는 도둑놈의 사상입니다. 결국 좌파 지도자들의 인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금 없는 복지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좌파의 포퓰리즘(Populism)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한 사회주의이며 결과적으로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통제에 두어야 한다”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p.308-313).

과거 한국 이명박정권 때 한 공익방송의 거짓된 보도로 쇠고기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 100일 가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촛불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지만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다 마귀의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반미를 외치고 미군철수를 외치는 좌익사상들이 그 주동이 되어 나리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은 중도실용주의를 외치며 자신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남북이 대치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좌나 우나 한 편에 서야지 중립은 없습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이념시대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이념 없는 정치는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만 한국이 북한에 의해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죽게 되는 자들이 목사, 장로 및 기독교신자들일 것입니다. 기독교신자들은 모두 다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학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	--

교육의 기저

보통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이란 미성숙한 상태의 아이를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르는 중대한 사명이다. 부모 또는 교사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 나아가서 교회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성을 다해 차세대를 양육하여야 한다.

중세교회에는 어떤 교육제도가 있었을까?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서양 문화의 기초가 확립되었는데, 교육의 가치관도 이와 함께 성립되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표로 하는 그리스의 교육은 당대와 후대에 한 개인의 지성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자극하였다. 인본주의가 기저를 이루고 있던 교육 사상이었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교육 이상을 수용하였지만, 동시에 가정과 국가에서 공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개인을 책임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로마 제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로마 황제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화된 학교 통해 인재를 양성하려 하였다.

우리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 이미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음은 하나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변형시킬 수 없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대 사상은 물론, 각 언어와 족속이 지닌 독특한 상황을 반드시 뛰어 넘어야 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그 "내용"은 계시로 받은 성경의 진리였지만, 교육의 "방법"은 이미 서구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존의 그리스 로마의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복음이 그리스 사상과 접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철학 체계를 통해 복음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다. 그리스의 사상이 복음의 '내용' 스며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이다.

고대로부터 중세 초기까지 이어지는 시기에 학교 교육의 중심에는 기초 학문이라 할 수 있는 '7가지 자유 학과'가 있었다. 중대교회를 정리하고 중세교회를 새롭게 여는 역할을 담당했던 어거스틴이 "그리스도교 교양"에 잘 정리해 놓았다.

그 중에는 언어와 관련된 3가지 학과 즉 문법학, 수사학, 그리고 변증학이 있었다. 또한 실제와 관련된 4가지 학과 즉, 수학, 기하학, 음악학, 그리고 천문학이 있었다. 향후 중세 시대에 '7가지 자유 학과'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마쳐야 할 교육 과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중세 교회의 교육

로마 제국 내에서 자리를 굳혀가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교육과 세속 교육을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

를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초창기부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실시한 '문답학교'가 좋은 예이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분과 출신에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종자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 반드시 실시한 교육이

만나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고자한 자들이 사용했던 방법론이 그리스 철학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사용했던 방법론도 그리스 철학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그리스 철학에 대하여 자연스레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교회 내의 수도사의 위치가 중시되면서, 어려서부터 수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5살부터 15세까지 소년들이 '수도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초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뉘어졌다. 초등반에서는 읽기, 쓰기, 라틴어문법, 음악, 산수, 등 초등교과를 가르쳤다. 고등반에서는 위에 언급한

중세 사회에 대한 언급은 우선 봉건제도의 발달로 시작되어야 한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공백상태에서 영주들은 중앙집권제로 나라를 통치하려던 왕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새롭게 생겨났다. 봉건제도는 토지의 주인인 영주와 절대적인 순종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토지와 보호를 약속받은 신하와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었다.

봉건제도를 배경으로 나타난 '기사 교육'은 칼을 쓰는 무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과 함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덕과 예의를 갖춘 기사들을 배출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태어날 때부터 훈련을 시작하여 21세가 되는 해에 기사로 입문할 때까지 상류 사회에 속한 자로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십자군 전쟁과 함께 중세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유럽 여러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결성한 직업별 조합인 길드가 출현하였다. 봉건 제도의 산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조합학교'를 운영하면서 특정한 직업을 위한 전문 교육을 제도화 하였다.

10살이 되면 '견습공'의 신분으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직종의 달인인 '숙련자'와 함께 먹고 지내면서 기술을 습득한다. 그 후 어느 정도의 기술을 연마한 '자공'이 되면,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장인을 찾아가 더 배우면서 수업을 얻기도 하였다. 특정한 기능에 능숙한 자로서 인정을 받은 '숙련자'는 공정한 심사 후 정식조합원으로 영입되었다.

한 마디로, 중세 대학은 길드의 출현, 즉 조합의 결성에 따른 중세 사회의 변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탄생되었다. 대학을 영어로 University라고 한다. 이는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는 조직이란 의미를 지닌 라틴어 universitas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가르치는 지식인들이 일종의 전문 직업인으로 등장하여 조합을 이룬 것이다.

세속 사회가 발달하면서 교회와 수도원에서 실행되던 교육보다 좀 더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학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대학이 형성되기 전에는 잘 가르치기로 소문이 유망한 선생을 찾아가 그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수준 높은 학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들의 집단 세력이 더욱 노골화되었다. 결국 대학은 교회 권력 및 세속 권력과의 마찰을 가져왔으나, 그 결과 대학은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이들로부터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12세기에 최초의 세워진 대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에 세워진 볼로냐(Bologna) 대학과 살레르노(Salerno) 대학, 프랑스의 파리(Paris) 대학,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Oxford)와 캠브리지(Cambridge) 대학 등이다.

12세기에 대학을 세울 때의 교육 목적은, 법학, 철학, 그리고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수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중세 시대에 출발한 대학에서 신학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교회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중세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교회교육 내용은 성경이지만 교육방법은 그리스 로마 방법론 선택 요한복음은 플라톤 철학체계 통해 분명한 복음이해 노력 흔적있어

있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길게는 3년이란 시간을 두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그 뿌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중세 시대 이후에도 줄곧 이어진 것이다. 현대 교회가 아직도 세례 또는 입교를 앞두고 문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세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을 완비한 뒤에 매우 수준 높은 고등교육기관이 등장하였다. '본산학교' 또는 '감독학교'이다. 각 교구가 세워진 뒤 책임을 맡은 감독의 영향력 아래 세워지고 운영되었던 교회 지도자 성직자 양성 학교이다. 교회를 책임질 자들에게 필요한 과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과 신학 이외에 읽고 쓰는

'7가지 자유 학과'(문법학, 수사학, 변증학, 수학, 기하학, 음악학, 그리고 천문학)를 가르쳤다.

이로서 중세 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리스의 철학이란 '방법'을 통하여 교육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7가지 자유 학과' 역시 서양 기독교 교육의 교과목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

12세기에 신학전문대학 출현, 교회가 중세사회에 큰 역할 의미 초기 대학설립목적은 법학, 철학, 신학 가르칠 대학교수 양성

다. 교회의 전통에 비해서 지나치게 형식화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동시에 '문답학교'에서 개종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지도자와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고급 문답학교'이다. 항상 거짓 교사가 등장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였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바른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학교였다.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외에, 철학, 수사학, 천문학, 문학 등 신학을 위한 기초 과목도 가르쳤다. 그 결과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 철학이 자연스럽게

법, 그리스 철학과 문학 등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 철학이란 '방법'을 통해 정리되고 전파된 것이다. 남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과 학적 능력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유럽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통일 시킨 샤를마뉴 대제를 통해 '본산학교'가 교회 교육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후에 '수도원 학교'가 나타났다. 수도원 학교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중세 수도원에 속한 부속 학교였다. 수도원을 찾았던 자들은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혼 구원과 거룩한 삶을 추

었다.

대학의 탄생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세의 교육이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대학은 언제 출현하였을까? 중세 12세기에 생긴 일이다. 중세 교회의 교육을 이하려던 그 배경이 되는 중세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여야 한다. 중세 사회는 교회 안에서만 변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CA region.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남성순복음교회, 남성영락교회, 남성제일교회, 남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인교회,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요셉선교회, 엘버인침례교회, 윌셔크리스천교회, 은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중은마음교회, 콘너스톤 교회, 토렌스노인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Each listing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



목회서신

놀림으로부터의 자유함



여승훈 목사

당신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해본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기뻐했던 기억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그로 인한 무거운 마음의 놀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자신

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마음의 놀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는 판단에 대한 마음의 무거운 놀림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는 과연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대답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신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성경 어디

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 하신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스바냐3:17).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노래까지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기쁨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 스스로에게 기뻐하실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

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던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실 때마다 주체하지 못할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농부가 농사철을 지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한 이후에 수확의 계절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보고 기뻐한다. 농사철에 수고하고 고생한 것은 열매 앞에서 다 잊혀진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는 희생을 치르시고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의 열매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마음의 무거운 놀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일 때문에 당신을 보고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인식하며 함께 기뻐하므로 마음의 무거운 놀림으로부터 자유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다. 그 진리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므로 마음의 무거운 놀림으로부터 한 단계 레벨을 올려보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쉼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50개 부스에서 현장선교사 만나다

KWMO 출범식 통해 선교박람회 본격화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리는 제 1회 선교박람회를 위한 최종 준비모임이 지난 8일 오전 10시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열렸다.



오는 11월5일부터 7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제1회 선교박람회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김정환 선교사는 "이번 대회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선교대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며 선교대회에 대한 바람을 밝히며 선교대회 일정 등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선교사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전에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에 대한 선교포럼과 간증의 시간으로 진행되며 포럼은 순서 당 20분의 분량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후와 저녁시간에는 야외에 설치된 부스에서 선교박람회로 준비된다. 부스는 총 50개이며 참석할 모든 이들이 50개 부스를 모두 방문해 선교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 한 수요일 오전에는 KWMO (세계선교교회운동) 창립예배를 갖고 사역을 본격화 하게된다.

김정환 선교사는 " 그동안 선교대회는 선교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선교에도

움도 많이 제공됐다. 하지만 강의 중심이어서 뭔가 부족함을 준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교박람회는 일반성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될 것이며 설치된 부스를 통해 현장 선교사들과의 만남도 이뤄져 성도들과 선교사가 소통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은퇴 이후를 보람 있게 보내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한다. 또한 마음은 있었지만 참여가 부담이 되었던 작은 교회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선교박람회를 통해 소형교회들이 심시일 반으로 연합해 선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교박람회의 목적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대회를 통해 중소형 교회들의 선교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내년 대회에는 좀 더 본격화 시켜 5-10명이 그룹을 만들어 공동체를 이루고 선교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지난 선교대회는 와서 듣는 대회였지만 이제 찾아가는 대회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힘을 얻고 선교에만 참여가 부담이 되었던 작은 교회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클레어몬트이종오부총장 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학기금조성, 차세대지도자 양성 등 헌신하겠다"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이종오 부총장 취임감사예배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이하 CST: 총장 제프리 관 박사)은 지난 7일 오후 4시, 이종오 대외협력 부총장 취임감사예배를 LA연합 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에서 거행했다.

예배는 인도와 찬양 김남중 목사, 이종오 박사 소개와 여는 기도 이창민 목사, 특송 CST 한인재학생, 말씀봉독(출18:9-27) 김정희 전도사가 각각 순서를 맡았다.

관 총장은 '모세의 리더십 교훈'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급변하는 현

존의 시대와 환경 속에서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바른 리더십은 세상이 아닌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 모세와 장인의 리더십의 교훈 속에서 성경적 리더십은 사람중심이 아닌 사역중심이다. 권한의 분배와 위임 속에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협력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관 총장은 설교를 마치고 이종오 부총장에 대한 서약 문답과 취임대 증정을 했으며, 김용민 목사를 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종오 부총장은 취임사에서

"CST 명문신학대학원의 중차대한 부총장 책무를 맡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장학기금 조성, 차세대 지도자 양성 등, 책임수행을 위해 동문, 학교와 후원자들과 함께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순서로는 △Mr. Byung Joon Lee & Mrs. Bok Hyung Lee △Rev. John Yoon △Mrs. Sung Sook Park 등 대학 장학기금 조성 기여자와 가족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 순서가 있었다.

축사에 나선 이병중 장로는 "항상 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했으며, 김낙인 목사(캘리포니아퍼시픽연회 코커스회장)는 "교회와 신학교는 물론 세상 사람들의 갈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사를 했다.

현금 특송은 테너 피터전, 현금 기도는 오경환 목사, 광고는 김남중 목사가 담당했다. 이어 Grant J. Hagiya 비숍의 파송과 축도로 마쳤다.

이종오 부총장은 연세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삼성전자 해외본부 근무, 엘슨전자 대표, 명지대 경영학과 부교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CAL State 방문교수,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재단이사를 역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찬양선교회가 주최한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들을 돕기위한 제4회 찬양선교음악회에서 전출연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 돕기

제 4회 찬양선교음악회, 미주찬양선교회 주최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 돕기 위한 제 4회 찬양선교음악회

음악회가 미주찬양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 주최로 7일 오후 6시30분

(박준호 기자)

홀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교회 아나운서(미주복음방송) 사회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LA남성선교장단(지휘 원영진), LA목사중장단(지휘 서문욱 목사), 소노로스심어즈(지휘 이종현), 레위남성성가단(지휘 광명규), 오렌지미선교아카데미(지휘 장진영) 등 남가주에서 활동 중인 남성합창단들이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소프라노 최정원이 특별출연해 찬양선교음악회를 빛내주었다.

음악회는 출연자 전원이 연합함창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불렀으며 청중들과 함께 실용봉을 한 후 이재근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시온복음선교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흠리스 훼손된 마음 회복되길"

시온복음선교교회 설립32주년 감사예배

시온복음선교교회(대표 글로리아김 선교사) 설립 32주년 기념 감

사예배가 6일 오후 3시 열렸다. 글로리아김 선교사는 "32년을 지

켜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32년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했는데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흠리스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훼손된 마음을 보게 된다. 그 마음이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목사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글로리아김 선교사가 기도했으며 정대철 목사가 누가복음 10장 25-37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태갑 형제가 특송했으며 글로리아김 선교사가 특별선교 보고를 했다.

이날 예배는 정대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여러 가지 말과 평이 있지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흠리스 교회에 지붕에 비가 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진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뒤로 누워 등으로 그 흠을 받아냈다고 말한다. 그것이 지금의 명성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치적 독재가 아닌 단순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로만 해도 분명히 감사의 대상이 된다. 80가까운 노모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한다.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데,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딸을 감옥에서 내어주면 안되겠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만큼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행한 그 새마음 운동의 노랫말의 첫 시작이 무엇인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음을 가꾸세'이다. 우리 민족이 그 새벽종 소리 듣고 일어났는데, 그 새벽종 소리가 무엇인가?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종소리였다. 우리 민족이 교회 새벽기도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룬 것이다. 노래에 등장하는 그 새벽종은 박대통령이 한때 신앙생활을 했던 구미 상모교회 새벽종소리였다는 것이다. 그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알뜰 그렇게 교회 새벽기도 종소리 노래하면서 나아갔더니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신앙의 기본-예배와 교회

영국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영국의 깃발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런데 몇 년전 컨퍼런스를 위해 가보니가 영국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것을 보았다. 한 인교회와 제대로 된 교회가 몇 개 있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칭해야지 후원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교회 빌딩이 팔려서 술집, 뽕집, 댄스장이 되었다.

어떤 빌딩에 이르렀는데, 모양이 교회였다. 그런데 좌우에 간판이 따로 세워져있었다. 한쪽에는 'Under 21'이라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목사님 설교를 안내하는 내용이 있었다. 원래는 교회였던 이 빌딩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세를 주었는데, 2층은 여전히 교회로 사용하고, 지하는 나이트클럽이 되어서 21세 이하는 못 들어간다는 표시였던 것이다. 원래는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으니 이젠 나이트클럽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등장한 것이다.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 삶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교회가 식당 뽕집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영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게 작고 초라하다. 차도 작고, 집도 작고, 길도 좁다. 식당이라고 들어가면 서로 의자를 부딪히며 식사를 해야 한다. 호텔은 별이 서너 개가 되어도 오래되고 물도 시원하게 나오지를 않는 데, 비싸기까지 한 것을 본다.

그런데 미국 땅을 한번 보라. 미국만큼 모든 게 갖춰진 곳이 없다. 시골 어디를 가나 호텔이나 모든 생활여건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음을 본다. 그 바탕가운데 역사를 추적해보면 교회를 중심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오래전 유럽에서 배가 각기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출발을 했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배가 있고 북아메리카로 오는 배가 있었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배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 가는 배였다. 그들은 황금을 찾았다. 그러나 지금 저들의 삶의 결

론은 피폐하기 짝이 없다. 마약의 소굴들에게 그냥 선교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신앙제일주의로 살지 못할 때, 땅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이었다.

1984년도에 필자가 중학교 다닐 때에 LA올림픽을 TV로 본 기억이 있다. 올림픽을 할 때 제일 먼저 미국의 초창기 역사를 꼭 보여주는데 있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는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교회를 세우고 다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집을 만들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담임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몇 달을 말씀하신 기억이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왜 그 나라를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 나라를 축복하셨는가? 그러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랬던 기억이 선명하다.

별들 한장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기준과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와 기본이 되어 있으면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이 되는 예배를 빼놓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를 빼놓고 삶의 축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잘 짜본들이 기본이 무너져있으면 믿음의 가문, 축복의 삶, 복된 세상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의 교회에 별들 한 장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복된 백성이 살아가는 땅을 축복하여 주시리라.

davidnjon@yahoo.com

동부교계 기사판



2018종교개혁기념 교회를 위한 신학컨퍼런스

2018종교개혁기념 교회를 위한 신학컨퍼런스가 10월 22일(월) 오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에서 열린다. 주제는 "종교개혁과 목회와 신앙"이며 강사는 강영안 교수(미국 칼빈신학교), 정성욱 교수(덴버신학교, 조직신학), 조진모 목사(필라델피아연합교회 담임), 심현찬 원장(워싱턴 트리니티연구원), 등록비는 25달러(점심 제공). 열린문장로교회와 워싱턴 트리니티연구원 등이 주최한다.

▲문의: (703)318-8970(#103), (517)375-5455

2018년 미동부지역 Imago Christi 영성훈련세미나

2018년 미동부지역 Imago Christi 영성훈련세미나가 10월 15일(월)부터 10월 17일(수)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수-오후 12시까지) 뉴저지 필그림 선교센터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목사, 선교사 및 사모. 등록비는 일인당 100달러(교재비, 식사 포함). 강사는 박동건 목사(KCRM 대표), 양춘길 목사, 최종대 목사(bigbell59@gmail.com).

▲문의: (312)286-4646

살롯장로교회 가을부흥회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10월 19일(금)부터 21일(주)까지 가을 부흥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본 교회 선교목사이며 세계적인 인신교대회 이사장 신동우 목사.

▲문의: (704)877-6642

교사 부모 세미나

뉴욕어린이전도협회(대표 최종대 목사)가 주최하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 교사 부모 세미나가 열린다. 뉴욕: 10월 23일-12월11일 매주 화요일 8주(English Teaching) 오후 7시30분-10시, 뉴욕교회(담임 김성기 목사) 뉴저지: 10월 25일-12월 13일 매주 목요일 8주 오후 7시30분-10시, 주수원교회 교육관(담임 육민호 목사). 온라인 등록비는 165달러(15일 이전 등록 140달러). 자세한 내용은 https://1drv.ms/f/s!AqCSnEXZwXEnCj3Yy5BRu-95p7K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312)286-4646

이광희 목사 은퇴 및 출판감사예배

이광희 목사(할렐루야뉴욕교회 원로) 고회 및 성역 40주년과 은퇴, 제 5집 작곡 책 출판기념 감사예배와 미니콘서트가 11월 5일(목) 오후 6시 대동연회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행사는 가족들이 주관한다.

▲문의: (718)744-5868

테너 솔리스트 모집

뉴욕 풍아일랜드에 위치한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 www.chamsarang.us)에서 테너 솔리스트를 찾고 있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연습시작, 오후 연습은 2시 30분에 마친다. 맨해튼과 플러싱 지역 모두 라이드가 가능하다. 사례비는 500달러.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josephan1983@gmail.com

북미원주민선교회 가을부흥성회

뉴욕교회 연합 산하 북미원주민선교회가 주최하는 가을부흥성회가 10월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린다. 시간은 금, 토 오후 8시, 주일은 오후 4시. 강사는 민경설 목사. 29일(월) 오전 10시30분에는 민경설 목사가 목회자 전도 동력 세미나를 인도한다.

▲문의: (917)514-0369



예장(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이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문삼성, 김혜영, 양명철 목사 임직 예장(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임직식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가 지난 7일 오후 5시 목사 임직식을 갖고 3명의 목사를 임직했다. 임직자는 문삼성, 김혜영, 양명철 목사.

문삼성 목사와 양명철 목사는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며 간호사였던 김혜영 목사는 병원 특수사역을 하게 된다.

김혜영 목사는 답사를 통해 "저의 삶이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저의 현재와 미래가 예수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매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임직식은 노회장 한준희 목사 사회로 임직자 소개 후 서약, 안수기 도, 약수례, 성의칙의, 공포, 임직패 증정, 권면, 축사, 축주(문태국), 담사, 광고, 축도(문삼성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안수위원은 송원섭, 이종명, 임준환, 장규준, 주효식, 함성은, 한준희, 신우철, 서문도, 김경열 목사. 권면은 송원섭, 이종명 목사가 축사는 임준환, 문석호 목사가 담당했다.

임직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노회장 주효식 목사 인도로 장규준 목사가 기도하고, 한준희 목사가 "말씀이 기준인 사람"(눅22:54-62)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받은 사명 사랑의 섬김으로 감당하자"

뉴저지 5개 교계기관 새 회기 출발 연합기도회

뉴저지 교계 각 연합회가 새 회기를 출발하며 연합기도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오후 7시30분 목사회 주관으로 뉴저지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교협(회장 홍인석 목사), 목사회(회장 김종윤 목사), 은퇴목사회(회장 정창수 목사), 장로연합회(회장 윤석래 장로), 사모회(회장 이순리 사모) 등이 참여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김종윤 목사회 회장은 목사회에 국한된 제안이 확대돼 연합기도회로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기도회는 김종윤 목사 인도로, 기도 유포우 목사(목사회 부회장), 설교 홍인석 목사(교협 회장), 한글기도 송호민 목사(목사회 회계), 특송 목사사모합창단, 기도 특송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광고 김주현 목사(목사회 총무), 축도 김정국 목사(은퇴목사회 부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정창수 목사는 은퇴목사회 회장의 기도 후 친교가



뉴저지 5개 교계기관 연합기도회를 마치고 출연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진행됐다.

홍인석 목사는 "새 계명, 새 회기"(요13:34-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위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며 격려했다.

홍 목사는 "하나님께서 뉴저지 교계 기관들과 지역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

다"며 "모든 지역 단체와 교회들이 주님과 하나가 돼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섬김의 제자가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새 회기 동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가을 수양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행복한 목회자와 성경적 설교자" 강의 총신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가을 수양회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회장 이재철 목사)가 지난 10월 1일과 2일 1박2일 일정으로 애틀랜타시에 있는 골든 너기트 애틀랜타시티 호텔에서 2018 가을 수양회를 가졌다.

수양회 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류 목사는 1일 저녁에는 "행복한 목회자와 성경적 설교자"라는 주제로, 둘째 날 오전에는 "제자훈련과 설교"와 "청중을 깨우는 설교전략"이라는 주제로 2회 강의했다.

이번 수양회에는 60여 명이 참석해 동문간의 우의를 다졌으며,

류응렬 목사 강의를 통해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 류응렬 목사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90회 동문으로 미 남침례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설교학으로 Ph. D를 받았다.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와싱턴중앙장로교회(KCPC) 담임목사와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객원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는 내년 1월 7일(월) 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신년 하례회를 갖는다.

(정리: 유원정 기자)



퀸즈 YWCA 김은경 사무총장(앞줄 꽃다발 든 이) 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 YWCA 김은경 제대 사무총장 취임

퀸즈 YWCA가 제 7대 김은경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지난 2일 오전 11시 본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사무총장은 "YWCA가 올해로 40년이 됐다. 지나간 40년의 발자취를 이어가며 새로운 세대에 부합하는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고 돌봄과 나눔을 통해 평화를 실천하며 이 커뮤니티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했다.

지난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김은경 신임 사무총장은 고 김리관 목사의 장녀로 서울대학교와 맨해튼 음대 작곡과 박사원을 졸업한 뒤 약 20여 년간 뉴욕에서 활동했으며, 무지개의 집과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사역해왔다.

퀸즈YWCA는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농산물 나눔 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동양화·태권도·공예·에버그린 합창단 등 시니어 프로그램, 성인 이민자를 위한 단계별 영어 프로그램 및 여성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은 뉴욕주와 뉴욕시 정치인들과 목사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영아 관회장의 사회와 정진호 목사(그루터기장로교회)의 기도로 시작됐다.

한편 퀸즈YWCA는 10월 20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을 페스티벌을 열고 핼린·페이츠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718)353-4553.

(기사제공: 퀸즈YWCA)

안 일어날 줄 믿는다"고 말했다.

기도순서를 통해 10개의 기도제목을 놓고 릴레이 기도가 이어졌다.

△각 기관의 새 회기 영적 출발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이정환 목사 △목회자 가정 환우 회복 및 영적 위로와 건강을 위해/김태수 목사 △미자립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성령충만을 위해/양혜진 목사 △지역 모든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의 연합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육귀철 장로 △은퇴목사회의 영적사역과 회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송호민 목사 △뉴저지 사모회의 성장과 사모들의 영적 위로와 건강한 삶을 위해/김신길 사모 △신설 장로연합회의 회원확보와 교계 장로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정일권 장로 △조국과 미국의 영적부흥 및 의정자들의 신앙을 위해 그리고 11월초 예정된 목사회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감동담고기행사를 위해/김동근 목사 각각 기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제 3차 임실행위원회 1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11월 총회 준비

제3차 임실행위원회... 업무회계보고, 신입회원 1명 가입

제 46회기 뉴욕목사회가 지난 9월 3차 임실행위원회를 가졌다. 11월 정기총회에 앞서 마지막으로 열린 임실행위에서는 그동안의 업무보고와 회계보고, 신입회원 가입 등의 안건을 보고 처리했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많이 모이기 원했지만 목사님들이 시간이 없는 것 같다"며 "기독단체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기사거리가 되지 않도록 1년을 지내왔다. 45회기에 이어 스코틀랜드 종교사적적 탐방을 했으며 임원들이 수고했다"고 말했다.

총무보고에서 장학금 전달은 신청자 9명 중 회원자녀 신학생 5명에게 각 1천달러씩, 서류가 미비된 4명에게도 각 5백 달러씩 총 7천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9월 28일 조직된 선관위원회는 위원장 송병기 목사, 서기 박시훈 목사, 위원 신현택(법규), 김주동 목사(서기), 안경순 목사(회계), 김상태 목사, 전희수 목사로 구성됐다고 보고했다.

회계보고는 2017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수입 95,496.49달러, 지출 96,557.10달러, 잔액 -1,-60.61달러로 보고했다.

신입회원은 김광섭 목사가 승인

받았다. 김광섭 목사는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목사)를 졸업하고 중부뉴저지장로교회(담임 이원호 목사)에서 전도사로 2년간 사역했으며, 2017년 10월 예정(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노회장 강신용 목사)에서 목사안수 받았다.

회의는 전희수 목사의 폐회기도 및 식사기도로 마쳤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한 기술 목사 인도로 기도 마바울 목사, 말씀 박수철 목사, 통성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광고 김주동 목사, 축도 이규형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수철 목사는 "이성적인 교회의 조건"(제21:21-22: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복음적, 유교적, 불교적, 사머니즘의 4대 사상이 뒤엉켜 있는 것이 문제의 내막"이라며 "이성적 교회가 되려면 ①하나님 중심 ②믿음 바탕 ③은사 충만 ④사랑 충만 ⑤예수생명의 말씀중심 ⑥은혜 충만 ⑦열매 맺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목사회 정기총회는 11월 26일(월) 뉴욕새해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제 17회 후원 모금 갈라에 참석한 이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패밀리터치 제 17회 후원 모금 갈라

패밀리터치(원장 장정숙 박사) 제 17회 후원 모금 갈라가 지난 10월 4일 뉴저지 다블트리 호텔에서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에는 그동안 패밀리터치를 통해 봉사한 학생들 중 11명에게 대통령 봉사상 메달을 수여했다.

김선 이사장은 "패밀리터치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해를 맞았으며, 이사회와 스태프들이 기존의 비전과 미션을 재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연설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제 제 39회 HYM 청년연합집회, 강사 더글러스 김 목사

제 39회 HYM 청년연합집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행20:19-24)’이라는 주제로 13일과 14일 양일간 오후 7시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집회의 강사는 HYM대표이자 20년 가까이 청년연합사역에 헌신해온 더글러스 김 목사. 더글러스 김 목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을 증거 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쓰임 받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말했다.

그는 또한 “그 어떤 어려움과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함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신앙고백이



더글러스 김 HYM대표가 39회 청년연합집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새한교회 창립40주년 기념 감사찬양제에서 전출연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LA새한교회 설립40주년 감사찬양제 성황

LA 새한교회(담임 정세훈 목사) 설립 40주년 감사찬양제가 6일 오후 7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세훈 목사는 “새한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설립 40주년을 맞이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40주년 감사 찬양제를 맞아 주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협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 교회 서준규 집사 사회로 시작된 감사찬양제는 새한찬양대(지휘 김종석), 뽀시바이여성찬양대, 레위남성성가단(지휘 곡명규)가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또한 본 교회 류향자 집사의 독창, 오평섭 집사와 박성웅 전도사의 이중창이 있었으며 정남열 집사의 축시 낭독이 있었다. 이날 찬양제는 새한찬양대와 레위남성성가단의 연합합창이 있은 후 정세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교회에서 열린 추계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이경은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주제

은혜한교회 추계부흥성회, 강사 이경은 목사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추계부흥성회를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창 4:1-7)’라는 주제로 4일부터 7일까지 이경은 목사(순복음 진주조대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했다.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 따라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열린 첫날 저녁집회는 ‘부부의 도리’(고전7:3), 5일 열린 둘째 날 새벽집회는 ‘믿음의 공식’(눅17:5-10), 저녁 집회는 ‘예배로 성공하는 인생’(출20:24), 6일 열린 셋째 날 새벽집회는 ‘응답의 걸림돌’(잠28:9), 저녁집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롬8:26-28), 주일 오후 집회는 ‘자녀의 도리’(신28:1)라는 주제로 이경은 목사가 각각 말씀을 선포했다.

(박준호 기자)

선포돼야 한다”며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이 이번 39회 HYM 집회에 참가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HYM집회는 첫날 HYM연합찬양팀(인도 국중현 형제)의 찬양인도와 더글러스 김 목사의 말씀선포, 그리고 합심기도 및 결단의 시간으로 이어지며 둘째 날은 은혜한교회 청년부 찬양팀이 찬양인도를 하게 되며 김 목사의 말씀선포와 결단의 기도 시간으로 이어진다.

더글러스 김 목사는 HYM 청년 선교사역이 이 시대의 청년들을 연합해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한 성령 부흥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토렌스선한목자교회 창립17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에서 임직받은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난을 복으로” ... 권사 3명 임직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설립17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토렌스 선한목자교회(담임 김현수 목사) 설립 17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7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임직자는 김명희, 윤성원, 허미옥 권사.

본 교회 찬양팀(담담 김창근 목사) 찬양인도와 김현수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강중경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전기철 목사(강남 새사람교회 담임)가 ‘고난을 복으로 바꾸십시오’(창50:15-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전기철 목사는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었으며 누가 보더라도 원망해야 하는 환경에 처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다”며 “우리 각자의 삶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바란다. 그러면 고난의 장벽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커지게 되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가 메아리 같고 역사하지 않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는 때다. 따라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믿는다면 길은 열리게 될 것”이라 말하고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권사 임직식으로 이어졌으며 강제희 자매가 특송을 불렀으며 교회설립 17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교회 발자취를 담은 영상이 소개됐다.

이날 예배는 김현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5일부터 7일까지 설립기념 추계부흥회가 전기철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에서 신애라 집사가 간증하고 있다

“인생의 2막, 가야할 길 가겠다”

나성영락교회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 성황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를 5일 오후 7시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신애라 집사는 “중3때 교회에 가기 시작했으며 교회 가는 것이 좋았다”며 “하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건 결혼 후 29세 때였다”고 말했다.

신 집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의무를 주셨다”고 강조하며 “세상이 너무 악했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다른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애라 집사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연기자로 가고 싶은 길을 갔다. 그러나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야할 길을 가려고 한다. 현재 학교에서 공개입양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공부를 마치고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 인생의 2막, 즉 가야

할 길을 가는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 말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효련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간증집회는 신애라 집사가 간증을 마친 후 박은성 목사가 청중들과 함께 신애라 집사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

이날 집회는 박은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미디어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SBS 이상호 PD가 강의하고 있다

서부교회게 게시판

제 2차 소망건강 콘서트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하고 카이론 토말이 후원하는 제 2차 소망 건강 콘서트가 10월 13일(토)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열린다. 건강콘서트는 육체의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건강 세미나와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음악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한인커뮤니티의 건강한 삶을 위해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강사는 UCI 방문교수인 편성범 교수(서울 고려대의과대학)이며 ‘건강한 뇌, 즐거운 노년’이란 주제로 뇌와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제 39회 HYM청년연합집회

제39회 HYM청년연합집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주제로 13일(토)과 14일(주) 양일간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갖는다. 강사는 분회 대표인 더글러스 김 목사이며 집회시간은 오후 7시.

▲문의: (714)393-5135

무료 영어수학 교육 안내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 Ministry(선교와목회를위한정보센터, 대표: 제임스구 교수)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정부학자금 보조-Federal Student Aid(FSA)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차원으로 FWS 공공커뮤니티서비스인 무료 영어와 수학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작문(Writing) 및 수학 공부가 부족한 모든 학생(초등, 중등, 고등 포함)을 대상으로 열리는 본 프로그램의 기간은 11월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이며 장소는 본 교 도서관 GL2 강의실(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문의: (714)515-5431(Library)

한민족 자유대한국인을 위한 특별강연회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 한미애국인협회는 12일(금) 오후 3시에 남가주 부엔나 팍의 더 소스(The Source) 물 중앙문화센터(6940 Beach Blvd.)에서 한민족 자유대한국인을 위한 특별 강연회를 연다. 일정은 1부 ‘복합문화권에서 리더십 세우기’라는 주제로 남가주 한국 예비역기독교인회장 김희창 박사(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대표, 인터컬처럴리더십연구), 2부는 ‘남북 중전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양준용 정치외교학박사가 각각 강의한다.

▲문의: (562)237-3298

나성영락교회 말씀집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말씀집회를 12일(금)부터 14일(주)까지 갖는다. 강사는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2일(금) 오후 7시, 13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14일(주일) 1-5부 예배.

▲문의: (323)227-1400

부교역자 청빙

나침방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EM(풀타임/파트타임)과 실버사역(파트타임)을 담당할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목회비전서, 신앙간증서, 추천서 각 1통을 이메일(help@nachimban.net)로 보내면 된다.

▲문의: (562)691-0691

2018 다민족연합기도회

2018 다민족연합기도회(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오는 28일(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10)995-3936, (213)255-1725

라팔마연합감리교회 38주년 설립주일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 설립 38주년 기념예배가 14일(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예배에서는 임직식도 함께 갖는다.

▲문의: (714)226-0300

“미디어 중독은 사탄의 전략”

나성순복음교회 미디어세미나, 강사 이상호 PD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3일 저녁 7시30분 본 교회 수요예배시간에 미디어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이상호 온누리교회 집사(SBS PD, 한국기독교연인연합회 총무)가 강사로 나서 ‘미디어의 영적실상’(예4:13-14)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상호 집사는 “미디어 시대에 사탄의 전략은 대중매체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이용해 미

디어에 중독되게 만들어 대중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성령님을 통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미디어에 중독되는 과정은 악한 영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에게 대중들이 영향을 받게 하며, 그들이 악한 영들에게 영감 받아 만든 콘텐츠를 접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누락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집사는 “스마트폰의 전자파는 청소년 성장발육에 장애가 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요소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시 3미터 이상 스마트폰과 떨어져야 하는데 미디어박스를 거실에 만들어 취침시간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 집사는 “미디어 콘텐츠의 상당수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고 있다”며 “자녀의 미래는 전적으로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30만명 연합예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기념행사준비 연합기관 통합논의 등 보고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모임을 갖고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와 연합기관 통합 논의의 상황을 보고했다.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은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기독교가 주축이 돼 서울 광화문에서 3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연합예배는 물론 학술대회와 오페라 공연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차상대에 놓인 연합기구 통합 움직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변창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3개 단체가 기구 통합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한기총이 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변 사무총장은 “대신 한교총과 한기연이 기구를 통합하기로 하고 연석회의와 통합 기자회견까지 열

었지만 한기연 내부 사정으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동상에 옹호·조장 정치인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종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은 “전북에서 목회를 하는데 단재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앞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동상에 옹호·조장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악법을 추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총회장 시대 먼저 열어 자부심”

‘예장교단 첫 여성총회장’ 개혁총연 정상업 총회장 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총연)는 2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첫 여성 총회장 정상업(64)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정 신임 총회장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동구 중흥교회(엄신형 목사)에서 열린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개혁총연은 회신교회가 2000여 곳인 중형 교단으로 여성이 총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103회기를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중에서도 여성이 총회장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취임 예배에 하루 앞서 1일 가진 인터뷰에서 정 총회장은 “개혁총연이 ‘여성 총회장 시대’를 가장 먼저 열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

앞으로 다른 많은 교단에서도 여성 총회장이 배출돼 여성의 리더십이 크게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혁총연 총회장은 다른 교단에 비해 선출되기가 까다롭다. 이는 개혁총연이 남부·서남부·동북아·중부·한남 5개 대회가 있는 대회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장은 대회장 대회장 부총회장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5년에 한 번 밖에 선출될 기회가 없다. 대회별로 돌아가면서 총회장을 뽑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이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정 총회장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회 전날 밤 교단

수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기도해야 했다”며 “그와중에 이사가 41장 10절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더니 평안이 몰려왔고 임기 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실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 은빛교회 담임인 그는 교단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연합하고 화합하는 여성 리더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정 총회장은 세계복음화여교역자협의회 대표회장과 새남포월드협의회 여성대표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총동문회 실무 부회장, 한국기독교영양회 상임회장, 기독교기독교동분부 부총재를 맡고 있다.

임기는 1년이다. 정 총회장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총회가 되겠다.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

박 총회장은 “성경적 진리수호 앞에 한국교회는 정치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유권자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각 교단과 노회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다”고 전망했다.

교단장들은 빌리 그레이엄 2020 전도페스티벌, 한국어 구약성경의 최초 번역자인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 C채널 주최 청년취업박람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교단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들이 인사했다. 교단장회의 총무는 이경욱 전 예장백석대신 사무총장에 이어 엄진용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무가 맡기로 했다.

기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며 사랑하겠다”면서 “특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속화, 다원주의 등을 막고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감사예배에서는 전 총회장 엄신형 목사가 ‘특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엄 목사는 “하나님께서도 정 목사를 첫 여성 총회장으로 특별히 부르셨다”며 “하나님이 정 목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도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에는 전 총회장 진상철 배동률 엄바울 최원석 최원남 목사와 직전 총회장 이은재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진호 전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유중현 대표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총신대 법인(임시)이사회는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김동욱(69·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수학했으며 199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제10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이른 시일 내에 총신대 안팎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15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이사들은 학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사회 도중 총학생회장 등 총신대 내부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인사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 유죄 확정

법원,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선고

법원이 배임증제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총신대) 총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5일 열린 공판에서 “김 총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던 2016년 9월 자신에게 상환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총회 진행권을 가진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총회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을 초래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박 목사가 “피고인이 대구까지 찾아와 부총회장 자격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선관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후보 자격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 보다 선관위원 15명 중 3분의 2인 10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자격을 확정짓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총회 회의 진행권한을 가진 박 목사를 찾아가 청탁을 했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 점, 피고인이 문제의 2000만원을 병원비와 해외선교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김 총

장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짧게 답했다. 판결에 불복할 시 피고인은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엔 총신대와 총신대신대원 학생 등 총신대내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태 교수) 측 인사들이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광탄락 총신대신대원대책위원장은 “감정에 복받쳐 말을 잇기 힘들다”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그는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감사하다”며 “다시는 총신대에 불의한 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총신대 학생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칙, 정관 수정 등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수 학생 직원이 연합해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 동행한 인사들은 “법정 구속은 생각지 못 했다”며 착잡해 했다.

한국사회 위기 돌파할 믿음·용기 구한다

기독교선교 햇불재단, 2018 햇불연합대성회

한국사회는 영적인 기로에 놓여 있다. 인권과 난민이란 이름으로 동상에, 무슬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남북 간 화해무르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그로 인한 갈등과 반목, 격정이 상당한 상황이다.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이사장 이형자)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2018 햇불연합대성회’를 개최한다. ‘복음으로 통일하라’는 주제로 오는 15일 서울 양재동 햇불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진행된다. 전국 햇불회 회원들은 물론 한국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햇불재단은 목회자와 사모 등 영적 리더를 모인 햇불회를 운영하면서 전국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매년 햇불연합대성회를 열고 있다.

이형자 이사장은 “동성애와 동성혼 및 이슬람 난민문제, 경기 악화 등이 나라가 경제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함께 모여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통일 기대감이 높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 열강 사이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

야 할 일은 결국 기도 밖에 없다. 햇불재단은 3만2000여명의 탈북민을 통일의 마중물로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통일 이후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햇불재단은 “이에 대해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통일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 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다.

햇불재단과 각 지역 햇불회는 이번 집회를 위해 40일간 아침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15개 지역의 16개 햇불회는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왔다.

대성회는 세 번의 집회로 진행된다. 양병희(영안장로교회) 목사가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탈북민 1호 목회자 강철호(새티교회) 목사와 탈북민 송신복(하나비전교회) 목사, 유정은(하나무혜교회) 전도사가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강연한다. 마지막 집회에선 한홍(새로운교회) 목사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한다. 집회 후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통성기도한다.

연합 사모햇불회 합창단과 세계적 성악가인 바리톤 유동진 집사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torchcenter.org).

서 이종승 목사는 ‘정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관영(경북성시화 대표회장) 목사가 기도하고, 임제택(대전성시화 대표회장) 목사가 축도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준비위원장 백승기 목사가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준비위 기획위원 김정식 목사가 경과 보고했다. 협의회는 사업계획안을 결정하고 쿼어축제 반대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

기감 9개 연회 새 감독 선출

교단 정상화 초석 다질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연회 감독 선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진로를 꾸렸다. 교단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새 감독들에게 벌써부터 직무대행 체제를 조기 공식하고 감독회장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임식은 오는 30일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리는 기감 제33회 행정총회에서 진행된다.

단독후보가 출마한 서울·서울남·충청연회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자를 확정했다. 서울 원성웅, 서울남 전주구, 충청 김규세 감독이 각 연회를 대표하게 됐다.

복수 후보가 출마한 연회들은 경합 끝에 감독을 뽑았다. 김학중 목사와 하근수 목사가 경합해 조미의 관심을 모았던 경기연회는 김 목사를 낙선했다. 94.97%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동부연회는 최선길 목사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중앙연회 감독이 된 김종현 목사도 상대후보보다 세배 이상 많은 득표를 했다. 이 밖에 중부 박병홍, 충북 조기형, 삼남 김종복 목사가 감독에 당선됐다. 감독의 임기는 2년이다.

남부연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두 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등록을 취소해 이날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남부연회는 8일부터 양일간 다시 후보자 접수

받아 오는 15일 선거를 실시한다.

기감 감독의 권한은 장로교 노회장들보다 크다. 우선 연회 행정과 총괄하고 목사를 안수하는 전권과 연회 산하 교회의 담임목사 직권 파송권한까지 갖고 있다.

이날 선출된 감독들은 혼란스러운 직무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았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상 운영 중인 기감은 직무대행도 다시 뽑아야 한다는 일부 총회실행부위원(총실위원)들의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열린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 직무대행이 예초에 후보 자격이 없었고 이에 따라 직무대행 선출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기감은 재판 전 재판위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 접수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총실위원은 직무대행의 권위(關位)를 주장하며 직무대행 선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기복 기감 선거관리위원장은 2일 “어려운 시기에 연회를 이끌게 된 감독들이 아무쪼록 겸손하게 기감의 혼란을 잘 수습하시길 당부한다”면서 “남부연회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성에 비판 ‘가짜뉴스’로 모는 시도 반대”

동반연 등 300여 시민단체 청와대 앞 도로에서 집회

동성에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300여 시민단체는 4일 서울 청와대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신문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수 약사 변호사 등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으로 몰았지만 팩트 체크 결과 한겨레신문이 주장했던 가짜뉴스가 오히려 진짜뉴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무력화한 뒤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면서 “아무리 가짜뉴스 혐오표현으로 낙인찍고 탄압한다 해도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다음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를 전하자”고 말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도 “헌법상 국민은 사생활 표현 학문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동성애가 왜 과학적·학제 법적으로 나쁜지 밝혀왔다”면서 “그런데 일부 세력이 정당한 표현을 무조건 가짜뉴스, 혐오표현인양 몰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내 독소조항의 폐해를 지적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국장을 만났는

데 ‘기독교는 혐오만 하는 단체’라는 발언을 하더라”면서 “이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해 상대방의 말과 생각, 입장을 통제하려 한다는 단언 독재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황수현 미국 변호사도 “이미 장애인 여성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혐오 가짜뉴스로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는 것만대자의 입장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거짓 프레임에 가두지 말라”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문제인정부 들어 임명되는 동성에 동성혼 옹호·조장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제인정부는 군형법 폐지소송 단장이었던 이석대 헌법재판관을, 군형법 폐지 법안을 제출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동성애물을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시켰던 최영에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했다”면서 “이념화된 인권, 가짜인권을 두둔하는 인사 임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부산 울산 대구 등지에서 온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방부 주재 대대복무제 공청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앞으로 자리를 옮겨 대대복무제가 종교적 병역 기피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 청빙 반려 김수원 목사”

서울고법 “직무유기 아니다” 판결

법원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건을 반려한 김수원 목사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인 최관섭 목사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의 각하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최 목사는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인용한 총회 재판관 판결에 불복하며 효력정

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에 제기했다 각하했다. 총회 재판관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을 결의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를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사회법원과 총회 재판관 모두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지 않다는 김수원 목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5차례 논의한 끝에 명성교회 청빙안을 반려한 만큼 김 목사 개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위반 여부 문제일 경우 안전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회장 승계에 관해서도 목사 부노회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이 전제됐었고 법원은 해석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오는 30일 정기회의를 소집해 노회장 등 임원선출을 다룰 예정이다.

“교회 신뢰회복 통해 거룩한 도시 만들 것”

‘한국지역성시화운동협의회’ 창립…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전국 시·도 지역 성시화를 위한 ‘한국지역성시화운동협의회’가 4일 창립됐다. 한국지역성시화운동협의회는 전국 시·도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의 수평적 협의체다. 이들은 이날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시·도 지역 성시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펼치는 데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영호남한마음 성시화대회에서 지역의 성시화운동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협의회 출범을 결정했다.

대표회장에는 채영남(광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목사, 상임회장에는 이종승(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목사가 추대됐다. 또 각 지역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인 허원구 임제택 이관영 김종술 진영식 조근식 목사가 공동회장을 맡았다. 백승기(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목사는 실행위원장이 됐다.

윤재현(전남동부성시화 대표회장)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향 폐지를 위한 성명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3일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채 대표회장은 “기존의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추구하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거룩한 도시’라는 가치를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역 성시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한 정보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49)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스페인어 책

교도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도소에 영어예배와 성경 공부는 있지만 히스패닉 재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스페인어 성경조차 없었다. 교도소에서 성경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던 최사라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스페인어 성경책을 사도록 500불을 기부 해주셨다. 그 후 몇몇 교회들도 스페인어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성경책을 기증했다. 그 후 교도소에서는 스페인어 성경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히스패닉 재소자 리더들이 그들도 예배와 성경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스페인어를 못하기 때문에 재소자 리더들에게 내 설교를 주면서 번역을 해서 그들이 설교문을 예배에서 읽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기도 모임과 찬송을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스페인어로 예배를 인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했다.

변화 프로젝트는 그 당시 영어로 된 책만 출간하고 있었다. 히스패닉 리더들은 내가 쓴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고 스페인어로 출간해 주길 요청했다. 나는 그들에게 번역을 부탁했고 F동의 3명의 히스패닉 리더들이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도가 느렸지만 진심으로 자기 동족을 돕고 싶어 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패닉 자원봉사자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변화 프로젝트는 그 당시 영어로 된 책만 출간하고 있었다. 히스패닉 리더들은 내가 쓴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고 스페인어로 출간해 주길 요청했다. 나는 그들에게 번역을 부탁했고 F동의 3명의 히스패닉 리더들이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도가 느렸지만 진심으로 자기 동족을 돕고 싶어 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패닉 자원봉사자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교도소에서 매주 일곱 번 스페인어 예배를 제공한다. 2007년에는 멕시코 사람들의 예배 출석자가 매달 평균 246명이었고 일년 총 출석자는 2,948명이었다. "예수님과 걷는 길" 책을 번역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번역하던 3명의 재소자는 우리 시설을 떠났지만 또 다른 재소자가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모두가 방으로 돌아가고 소동이 되었을 때 번역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F동 방에 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책을 읽을 만큼 충분한 밝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책상에 앉아서 희미한 빛만으로 "예수님과 걷는 길"을 번역하는

것을 본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그는 번역을 끝마쳤고 이 프로젝트에 관한 기금 또한 모여져서 스페인어 책 20,000권을 출판했다.

2010년에 내가 편집하는 것을 도와주고 특별히 스페인어 번역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 미에야 비즈카라라는 여자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스페인어 책 편집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를 만났다.

어느 날 F 1400동에서 미에야가 스페인어 편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스페인어 책 마지막 교정을 봐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더 출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여 그 일을 훌륭하게 해냈고 후에 책들이 출판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책 교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책 프로젝트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열매"-미에야 비즈카라

내가 체포되고 한 달이 안 되어 재소자들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도와서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책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 내용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들이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돕는 것을 알았을 때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난 아니야! 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그 당시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금식하며 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게 여러 가지 기도 프로젝트 소책자를 주었는데 나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로 쓰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변화 프로젝트를 도와서 스페인어 수정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다.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마9:37)라는 말씀을 주셨다.

불순종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부

드러운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셨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끝내는 성령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마13:23).

책 수정하는 일은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는다. 만약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도 치유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나누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편집 사역에 동참하는 동안 맥도날드 목사님과 나를 멘토링 해줬던 아름다운 사람들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졌다. 내가 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이해했다. 그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므로 변화 프로젝트의 문서선교 사역이 미 전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도소에 온지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소유를 초월하는 만족 또한 배웠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나는 전에 쉬지 않고 달렸지만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에서 끝낼지는 알지 못했다. 이제야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의 집을 향하여 가면서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투고 칼럼

핑크 예수? 10월에 공립학교에서 선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혼돈하는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거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10월은 "LGBT History Month"란 제목으로 성소수자 행동가들이 전국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정하고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협회에서는 이런 이벤트에 소개된 사람들 가운데 어둡고, 우리 생각을 교란하며 뻔뻔스러운 정치적 선전을 도모하는 인물들에 대하여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도가 넘은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하면서 공격적인 이슈에 대하여 경고를 드립니다. 이들이 내놓은 31명의 인물 가운데 LGBT History Month(LGBT란 말은 성소수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영어로 Lesbian-여성동성애자, Gay-남성동성애자,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의 준말)에 길버트 베이커(Gilbert Baker)란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지개색 깃발을 만든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길버트 베이커란 사람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란 잘못된 정보로 알려지고, 미국 국기를 만든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학생들 생각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LGBT 운동의 영웅으로 "분홍 예수(Pink Jesus)"를 만들었던 것이 학생들 생각 속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온몸을 핑크색으로 바르고

핑크색 하이힐을 신고 영어로는 loincloth라고 하는데, 몸에 간담하게 두르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핑크색 가시 면류관을 쓰며 우리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이들이 만들어 놓은 LGBT History Month에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선전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부모들에게 쇼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관할 때가 아니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빙산의 일각입니다. LGBT History Month에 소개된 나머지 30명의 프로필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은 절대 미국의 영웅으로 소개될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하실 수 있는 일은 태평양양회 웹사이트에서, What Every Parent Needs to Know About LGBT History Month, from PJI.org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읽으실 수 있고, 혹시 읽으시기 힘들다면 주위에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간략한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실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논리정연하게 잘 준비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 교사들과 이야기하시고, 교장과 기타 학교 행정관들에게 LGBT History Month가 공립학교에서 합당하지 않음을 나누시고, 이메일이나 보통 메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 통합

교육국의 크기에 따라 이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교사 개인이 조그마한 규모로 각 클래스 안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여러분들 자녀의 학교에서 LGBT History Month를 실행한다고 하면 우리에겐 연려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성별 차별 없이 가르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성별 차별 없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하여 그가 끼친 영향을 배워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LGBT들은 그가 그들의 영웅이라고 선전했다). 그리고 또한 성별에 대하여 혼돈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우리가 모두 안타까워하며 돌보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염려는 성을 강조하고, 역사의 사실을 잘못 해석하고, 그 어두운 영웅들의 생애 때문에 나타나서 결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서 위험, 파괴 그리고 이단적 행동을 선전하고 도모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다른 어떤 그룹도 이런 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어느 종교도, 어느 단체도, 이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주).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브래드 다쿠스(Brad Dacus, 태평양양회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대표)

▲한국어 웹사이트: korean.pacificjustice.org

"옥중 보여준 행동과 성품 수감자에 큰 영향 미쳤다" 필리핀서 126일간 구금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백영모 선교사

"당신이 옥중에서 보여준 행동과 성품은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려운 감옥생활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좋은 모범도 보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은 요즘 좋은 친구가 돼줘서 감사합니다."

불법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서 126일간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백영모 선교사가 받은 필리

핀 수감자 대표의 편지다. 그는 백 선교사의 보석이 허가된 직후 이 편지를 전달했다. 백 선교사는 안티폴로 지역 리잘주립교도소 구금 당시 수감자를 대상으로 성경과 한글을 가르치고 기도모임을 인도했다. 다른 수감자는 백 선교사의 영어 이름인 '다니엘'을 수놓은 가방을 선물했다.

백 선교사는 4일 "매일 1시간씩 성경공부와 한글공부를 수감자들과 함께하며 이들의 신앙 및 한국

어에 대한 궁금증을 채워줄 수 있었다"며 "이런 시간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백 선교사는 "(건강이) 특별히 나쁜 구석은 없다"고 말했지만 옥중에서 진단받은 폐결핵 치료를 위해 4개월여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는 "현지법상 폭발물 소지 혐의의 경우 보석이 불가능한데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으므로 향후 재판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사의 의견이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특가 온라인 판촉물 전문기업



핀촉상인 US

us.87sangin.com

FREE SHIPPING!

※현수막, 단체T셔츠 주문 환영



신속 정확 착한가격

기독교 서적 및 일반 서적

45% OFF+tax

한국서적

HANKOOK BOOKS

판촉상인 US / 한국서적 HANKOOK BOOKS

◆ Address : 161-21 29th Ave. Flushing, NY 11358 ◆ TEL : 718-762-1200 / 2000 ◆ E-mail : bookskorea@gmail.com ◆ Kakaotalk : moonsyang

선교 보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과테말라 단기선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과테말라 쉐라 지역 산마을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했다. 선교팀은 목사 5명 전도사 1명 장로 1명으로 7명이 참가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17년 엘살바도르, 2016년 콜롬비아, 2015년 페루, 2014년 콜롬비아 단기선교를 통해 현지선교사 지원 및 해외 아동결연방문, 아동과 성인을 위한 전도집회 및 집짓기 등의 사역을 해왔다.

2018년 과테말라 쉐라 지역 및 치코 지역 단기선교 사역내용은 △치코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 전도 집회 및 선물 전달 △쉐라 지역 CDP센터 어린이 예배 및 선물전달 △쉐라 지역 이웃초청 전도 집회 △후원아동 가정방문 △부두막 화장실 건축현장 방문 △현지스태프 위로의 밤 행사 등이었다.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의 사역지인 쉐라 지역 산마을은 해발 2,940미터 산중턱에 있는 마을이며 주민들은 카탈리이 97% 이상이다. 감자,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36년간 내전으로 인해 산마을로 숨어들었던 곳으로 몇 년 전만해도 어린이들을 유괴하는 경우가 생겨 타지 사람들에게 폐쇄적이었던 곳이다. 대중교통이 없으며 단기 주일에는 마이크로버스가 다닌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으며, 높고 늘 구름이 덮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영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꿈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삶이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장 선교사부부는 산마을의 어린 영혼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섬기고 있다. 매주 주일예배를 드리고 주 5회 학교공간을 활용해 CDP사역을 하고 있고 가정심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바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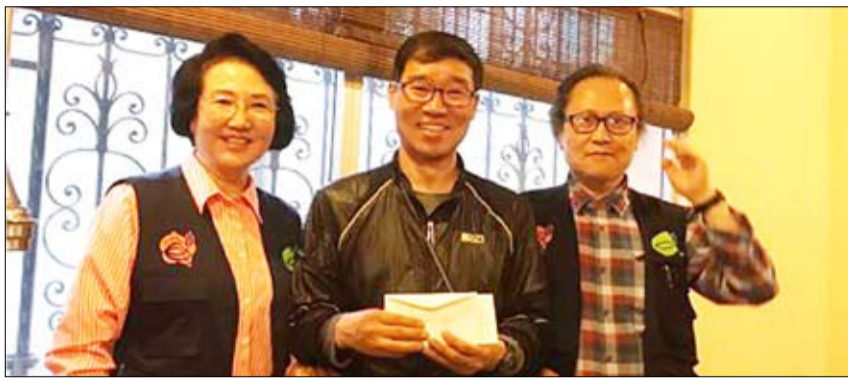
치코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도집회

섬마을 치코 지역은 해발 0미터의 태평양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이며 마을에 들어가려면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섬마을이라 불린다.

1000명이 사는 이 마을의 특징은 전기가 없고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리고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동안 여자장사, 마약장사, 술장사가 행해지고 있다가 2년 전부터 술장사만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산마르코 출신인 여성목회자 카리나 목사가 엘사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전도 집회는 장 선교사님의 스태프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 울동 게임에 이어 유상열 목사가 고리도전서 1장 18절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유상열 목사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



선교비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전희수 사무총장, 장경순 선교사, 유상열 회장.

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사형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지혜 중에 지혜이며 능력 중의 능력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된다"며 "이 십자가의 의미는 첫째, 사랑의 십자가다. 불순종함으로 원수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둘째, 승리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한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셋째, 구원의 십자가다. 구약시대의 동물의 희생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대속주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한다"고 전했다.

쉐라 산마을 CDP 센터 어린이 예배

어린이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DP센터 스태프들의 인도로 찬양 울동을 하고 김인한 장로 기도에 이어 권근주 목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본문으로 "행복한 어린이가 되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근주 목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한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이셨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이란 공기와 바람과 같이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시간에 꼭 참석해야한다.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전했다



화장실 부두막 건축 가정방문

쉐라 산마을 이웃초청 전도집회 부모님과 이웃사람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DP센터 스태프들의 사회와 찬양 울동 후 전희수 목사 기도에 이어 박진하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엡3:18-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사랑은 말로 할 수 있지만 몸으로 보여주어야 서로 신뢰할 수 있다. 신앙생활의 순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사랑은 그 범위가 너무나 좁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범위가 측량할 수 없이 넓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한다. 사람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너무 깊어서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넷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한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높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고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고 그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 그 사랑을 삶속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전했다.

현지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에서 선교팀들이 한사람 한사람 안수하는 시간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후원아동 가정방문

일정상 6명의 가정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축복기도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1. 리빙스톤교회(유상열 목사) 결연

아동 유치부어린이 "바아롱": 아버지의 외도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엄마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아버지는 감자농사를 짓는다.

2.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권근주 목사): 초등학교 1학년 "디에고" 아빠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지진으로 살던 집이 무너져 지금은 외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 유치부인 "에데르" 미혼 모가정이며 집이 없어서 이모집에 살고 있다.

3. 퀸즈침례교회(박진하 목사): 초등학교 3학년 "헤르메르 오마르. 미혼모 가정 학습이 늦어서 11살인데도 학년을 올라가지 못함. 유치부 '아나엘'은 부모님과 5형제가 살고 있고 아버지는 감자농사를 짓는다. 유치부 "텔리아"는 부모님과 살고 있고 아버지는 감자농사를 짓고 삼촌과 고모들이 알베노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

화장실 부두막 건축 가정방문

쉐라 산마을은 씨족마을로서 이곳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놀이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깨진 부두막에서 연기를 마시고 생활하고 있다. 이것이 지속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은 건강 및 삶의 질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와 장경순 선교사부부와 함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화장실도 위생적으로나 안전상으로 미약하고 어느 가정은 미약한 화장실도 없이 자연을 사용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화장실이 완공된 결연아동 아나니아 가정을 방문하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의 팻말을 붙이고 이경명 목사의 격려의 말과 축복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화장실부두막 사역은 현지 엄마들이 동경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역임으로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 진행된다. 경비는 800달러다(화장실 부두막 함께).

스태프 위로의 밤과 경건회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 기도로 무장하며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사역 일정에서는 차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사역을 진행했다.

꼬불꼬불 산등성이를 돌아가는 길,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고 캄캄한 험한 길, 차가 올라갈 수 없어서 걸어서 올라가는 산마을, 이곳에서 장경명 박윤정 선교사의 과테말라 땅의 영혼들을 위한 땀과 눈물을 생각하니 넉넉히 해낼 수 있었다.

장 선교사님 부부의 선교사역을 돕는 현지인 스태프들에게 선물을 전하며 현지음식을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16편으로 계속)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장폐색

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발생

가끔 소화기 안 되거나 바이러스 장염에 걸리고 나서 음식물을 먹은 후 복통과 함께 구토를 할 때 '장이 막히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의 장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정되는데 정상적으로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장염에 의해서는 장이 막히지 않는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50대 중반의 박 모 씨는 3일 전부터 식사 후에 구역질과 함께 구토가 나서 병원을 찾아왔다. 음식을 먹고 나서 2-3시간 후에 속이 메스꺼워지고 음식물을 토해냈다. 또 상복부 통증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고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병원에 왔을 때 박 씨는 닷새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다. 박씨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장 수술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가끔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박 씨의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맥박은 분당 110회로 빨랐다. 복부 검진 상 복부가 조금 팽창되어 있고 장음은 현저하게 감소돼 있었으며 만질 때 통증이 심했다. 복부 엑스선 촬영 상 장폐색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단층촬영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박 씨는 장이 막히는 질환인 장폐색이라고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해부학적으로 대장은 지름이 넓어서 꼬이거나 혈액 순환이 차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장폐색이 드물지만 소장엔 지름이 좁아서 막히기가 쉽다. 과거에는 탈장이나 장폐색의 흔한 원인이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장 수술을 하는 환자가 증가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생기는 장 유착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장폐색의 3/4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개복 수술 후 약 5퍼센트에서 장 유착이 나타나고 장폐색 증상을 보인다.

장폐색이 생기면 막힌 부위의 위쪽인 소장과 위가 늘어나게 되고 소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장에 괴사(장이 썩는 것)가 일어나게 된다. 장폐색은 소장 일부만 막히는 부분 장폐색이 있고, 장 전체가 막히는 완전 장폐색이 있다.

수술 후에 생기는 장폐색은 대부분 부분 장폐색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수술보다 예후가 더 좋다. 하지만 완전 장폐색인 경우 수술 이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고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장의 괴사가 일어나서 사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분 폐색인지 완전 폐색인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29)



세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인적자원과 성경적 원리(2)

A.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인적자원에 대한 성경적 원리도 종업원의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원리로 '황금률'로 불리는 말씀이다. 이 원리는 노사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B. 진실하라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고 이 직업을 통해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과 영성이다. 따라서 기독교 경영자는 조직에 속한 종업원들이 이러한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 문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D.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구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게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쓰여져 있다 이것은 일에 대한 본질이 긍정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힌 사람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한 자는 더욱 가혹한 결과를 받아 마땅하다. 즉 현실적으로는 무과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만으로는 직업적인 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부적절하다.

출애굽기 21장 1-3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법규를 나열하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히브리 종과 자유, 여종, 살인, 소와 소의 주인 등 다양한 적용이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소한에 지켜야 할 규정

적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E.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로마서 1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다른 능력을 주신다.

기독교 경영자는 조직의 인적자원인 각 종업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최대한 발휘하도록 개발하고 조직의 구조에 배치하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자의 몫이다.

F.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라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문제에 대해서도, 규약은 비의도적으로

을 성경을 통해서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경영자는 적어도 사회적 법률로 정한 규범만을 지켰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인적자원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의 출발점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독교 교리적 차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은 사망에서 단숨에 구원

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다. 특히 기업의 현장에서 종업원은 종업원의 입장에서, 경영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람 중심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성공전략이 숨어있다.

dr.jameskoo@yahoo.com

경영자는 개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개발 배치해야 재해보상은 사회 법률로 정한 규범이상의 책임의식 요구

기독교 경영자는 인적자원 측정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는 진실해야 한다. 화를 낼 때도 진실해야 한다(엢4:21-29). 조직 내에 조직원들의 인사과에 대한 측정

C. 일에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5-6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셨고 협력해서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신다(골3:22).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 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정립해야 한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맞게 세상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인간의 사명이다.

매일가정예배

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왕상4:20-24)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찬란하고 흥통한 복을 받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흥통함은 솔로몬왕이 생

복을 내리셔서 그렇습니다. 잠10:22,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곁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누리면서도 근심 없이 행복합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왕상4:24-28)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어떤 복입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사는 축복"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성한 번영"과 "편안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늘 풍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연히 살았다"는 미완료시제로

계속해서 안연히 잘 살았다"는 뜻으로 "안연하다"를 히브리말로 해석하면 요즘 우리가 잘 쓰는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내적으로는 "탄탄하고 확신에 차고 늘 믿음으로 잘 살았고", 외적으로는 "늘 안전하고 풍성하고 번영을 누리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므로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수 지혜와 충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왕상4:29)

오늘 살펴볼 말씀은 솔로몬이 온 세상에 명성이 자자한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됐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교훈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와 충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드셔서 먼저 흥통한 복을 주시고 동시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의 지혜 "호크마"는 아주 실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통찰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목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왕상4:29)

"충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말로 "테부나"로,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어렵고 복잡해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배울수록 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서 놀라운 통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므로 어디에서나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나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충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왕상4:29-30)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충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주목할 것은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충명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되 어떻게 주십니까? 조금씩 주십니까? 아닙니다. "심히 많이 주십니다." 지혜와 충명만 심히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넓은 마음까지도 바다의 모래같이 주십니다. 여기에서 "넓은 마음"이란 "지혜와 충명"을 다

받을 만한 그릇을 말합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라" 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충명이 이 세상 그 어떠한 지식과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토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왕상4:31-34)

이 지혜와 충명은 나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천하 모든 왕들이" 이 지혜와 충명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사모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왔

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뜻은 "듣고 순종한다", 즉 "이 지혜에 굴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그 지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온 땅에 넘치고 그 도에 복종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경외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Churches listed include Galilee, Wungo, Bexco, Bena, Boston, Salt, etc.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8 과테말라 단기선교(10월 1-5일)



현지 선교원에서 방과후 어린이들과 집회를 가진 후 선물을 나눠줬다.



집회에 참석한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집회 중 간절히 기도하는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찬양과 율동을 하고 있다.



새 화장실을 제공받은 가정의 어린이와 회원들이 기념촬영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후원해서 만든 부뚜막 앞에서 유상열 회장이 한 것.



첫날 집회 광경.

<14면에서 계속>

2018년 과테말라 웰라 지역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선교팀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세밀하게 준비해주셨고 섬겨주셨던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통역을 위해 수고해준 예나 자매(장-박 선교사 딸) 수고에 감사하며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한국에 나가서 순응시험을 준비하는 동권형제(아들)에게 합격에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사역을 돕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

며 과테말라 웰라 지역 치료 지역 단기선교를 은혜가운데 마치고 뒤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 전희수 목사 breadngospel@gmail.com

Food in Bible(8)

과일 및 채소류 (Milk & Dairy Product) (하)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성경 속의 채소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먹던 오이(cucumber)와 참외(melons), 부추(leeks), 파(onions), 마늘(garlic)을 그리워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는 이러한 채소류를 먹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

고 있다(잠15:17, 신11:10-11, 왕상21:1-2, 단1:16, 롬14:2, 민11:5, 삼하17:27-29).

건강에 좋은 과일 채소류

현대인의 영양에 있어서 과채류의 섭취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의 섭취와 암과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항산화제의 섭취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기에 영양학자들에게 의해 여러 캠페인을 통해 섭

성경에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언급... 쇠비름도 재배됐을 듯 과채류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와 항산화제 섭취에서 매우 중요

이 생각나거늘", 민11:5).

여기서의 melon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재배되었을 water melon이나 musk melon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Onion은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리어지며 이 지역에서 6000년 이상 부식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언급된 "참외밭"(field of melons)은 오이(cucumber)밭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열왕기상 21장 2절에서는 "나물밭(a garden of herb)을 삼게 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이 시대에 허브(herb)류의 채소가 재배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야생으로 자라며 중동지방 요리에 사용되는 쇠비름(purslane)이 성경 시대에도 자랐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으므로 이런 종 류들이 그 밭에서 자라지 않았을 까 생각한다.

이 외에 성경에서는 채소류(vegetables)가 구체적인 종이 아니라 집합적인 명칭으로 사용되

취가 권장되고 있다. 물론 당뇨병과 신장병 등의 질환으로 인해 특정 과채류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중 건강을 위해서는 과채류 섭취는 반드시 권장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에 의한 과채류 일반 권장량은 하루 2컵의 과일과 2.5컵의 채소이고 식사 시 자기 식기의 반을 과채류로 채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별히 그리스, 이태리 남부, 스페인 지역에서 섭취된 지중해 식이(Mediterranean diet)는 심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식이에서는 과채류, 통곡식, 너트(nut) 등의 식물성 식품 섭취가 강조되고 있고 특별히 버터 같은 포화지방산 유지 대신 올리브유 같은 건강에 좋은 식물성 기름의 사용과 적정량의 포도주 섭취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 지중해 식이에 포함된 건강에 좋은 과채류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여 본 글에서 언급된 과채류들이므로 그 성경적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기를 권한다.

cse1001@gmail.com

제1회 선교박람회 MISSION EXPO



하나님은 당신을 황금기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선교는 기회로부터 출발합니다." 소중한교회 선교운동(소형교회+중형교회+한인교회)

평신도를 위한 특별 선교체험 "걸어서 사도행전 속으로"

- 대회장: 한기홍 목사
- 대외고문: 최찬영 선교사, 김민희 목사, 이재환 선교사, 김영환 선교사, 박희성 목사, 조한영 목사, 노경태 목사, 주혁로 목사, 김상옥 선교사, 변재창 선교사, 이범립 선교사, 이재준 선교사, 정근태 선교사, 이순영 선교사, 이용주 선교사
- 준비위원장: 김민희 목사, 이재환 선교사, 김영환 선교사, 박희성 목사, 조한영 목사, 노경태 목사, 주혁로 목사, 김상옥 선교사, 변재창 선교사, 이범립 선교사, 이재준 선교사, 정근태 선교사, 이순영 선교사, 이용주 선교사
- 공동준비위원장: 김민희 목사, 이재환 선교사, 김영환 선교사, 박희성 목사, 조한영 목사, 노경태 목사, 주혁로 목사, 김상옥 선교사, 변재창 선교사, 이범립 선교사, 이재준 선교사, 정근태 선교사, 이순영 선교사, 이용주 선교사
- 황금기선교사: 상영규 선교사, 임윤택 교수, 이연수 선교사, 송홍자 선교사, 이영대 선교사, 김영근 선교사, 김홍식 선교사, 김경생 선교사, 문옥남 선교사, 이윤식 선교사, 황선규 목사, 박종국 선교사, 조강범 선교사, 김금태 선교사, 전대용 선교사, 안창호 선교사
- 진행: 상영규 선교사, 임윤택 교수, 이연수 선교사, 송홍자 선교사, 이영대 선교사, 김영근 선교사, 김홍식 선교사, 김경생 선교사, 문옥남 선교사, 이윤식 선교사, 황선규 목사, 박종국 선교사, 조강범 선교사, 김금태 선교사, 전대용 선교사, 안창호 선교사
- 농축산 및 BAM 포럼 강사: 박영환 선교사, 배종원 선교사, 서동선 목사, 송상선 선교사, 황진호 선교사, 김양문 선교사, 최재노 선교사, 김창훈 선교사, 김교택 선교사, 김상기 목사, 장금주 선교사, 이상섭 박사, 박형서 선교사, 김홍성 목사, 장준화 원장, 권희영, 손유희 목사
- 관향인도: 권희영, 손유희 목사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9AM ~ 7일(수) 6PM
장소 :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등록비 : Free

주관 : KWMO 한인세계선교기회운동
주최 : SON MINISTRIES / GMAN
문의 : kwmo4u@gmail.com Tel : 714-350-6957